



정교회주보

제2581호

2026년 6월 14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필립비 강가에서 사도 바울로 일행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고 세례받은 자색 옷감 장수 리디아와 여인들



마태오 제 2 주일

엘리사 예언자

(제1조 • 조과 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예언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로마 2,10~16 ..(봉) 124
 - 복음경 : 마태오 4,18~23 10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은유, 그리고 절제입니다."(갈라디아 5,22-23)

[23회] 필립비의 리디아

유럽의 첫 관문이자 마케도니아 외곽 도시인 필립비에 도착한 바울로 일행은 안식일에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다. 그곳에서 티아티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이자 하느님을 섬기던 고결한 리디아를 만났다.(사도행전 16,14)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어 바울로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고, 마침내 리디아와 온 집안이 세례받았다. 그녀는 "정말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사도행전 16,15)하고 간곡히 청하며 사도 일행을 머물게 하였다. 그 후 리디아는 필립비 교회의 든든한 주춧돌이자 후원자가 되었다.

유럽 선교의 위대한 시작은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강가의 작은 만남과 한 여인의 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처럼 준비된 한 사람의 진실한 헌신을 통해 한 도시와 한 대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즉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열린 것이다.

1달러짜리 십자가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오래전 그리스에 머물던 시절, 예루살렘에서 유학 중이라는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외국에서 만난 한국인이기에 반가움으로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지요. 신앙 이야기로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그들은 제 목에 걸린 짙은 갈색의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십자가, 정말 아끼시나 봐요."

저는 약간의 자부심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아는 수녀님이 주신 겁니다. 아마도 그분이 가장 아끼던 십자가였지 않나 싶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그 십자가, 예루살렘 길거리 좌판에서 1달러에 파는 흔한 기념품이에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중하게 빛나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바래버린 것 같았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왠지 마음이 째뼘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니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건네준 수녀님의 사랑과 호의도 그대로였고, 그 성물이 품고 있는 구원

의 의미 역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하나, 세상의 가격표를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제 모습뿐이었지요.

그제야 부끄러운 제 영적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비싸면 가치가 더 있고, 색다르면 더 귀하며, 화려하면 더 특별하다는 세속의 잣대로, 저는 감히 신앙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주님은 속마음을 들여다 보신다."(사무엘 상 16,7)

주님께서서는 값으로 매겨지는 외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수한 믿음을 보십니다. 혹시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신의 신앙에 세상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에 어찌 세상의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무든 금이든,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다면 어떤 보물보다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짙은 갈색 나무 십자가를 목에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화려한 곳보다는 가장 낮고 평범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늘 겸손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때로 생각합니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물으실 것입니다.

“흠... 지상에서의 삶은 어떠했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친절한 웃음으로 우리의 말을 가로막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나는 벌써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삶 전부를 다 지켜보았단다. 그래도 네가 더 잘 말해 줄 수 있을 거야... 땅 위에서의 삶은 너에게 어떠했니? 너는 그 삶을 좋아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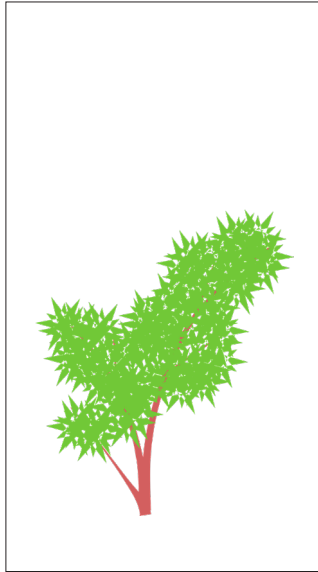
내가 너에게 주었던 해돋이를 기억하니? 붉게 물들며 빛나던 일몰을 보았니? 비 온 뒤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니?

바다는 어떠했을까? 파도 소리 속에서 바다가 너에게 하던 말을 들었니? 높이 솟은 산들을 보았니? 숲은 어떠했니?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로 어떻게 지나갔니?

새들을 관찰해 보았니? 고래는 어떠했을까? 고래가 얼마나 경이로운 동물인지 상상해 보았니? 그리고 별이 빛나는 하늘은 또 어떠했니? 그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기 위해 가던 걸음을 멈추었던 적이 있었니?

나는 이 세상 속에 아주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다고. 네 주위에는 아주 많은 아름다움을 펼쳐 놓았단다. 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무엇이 기억에 남니?”

형제자매들이여, 만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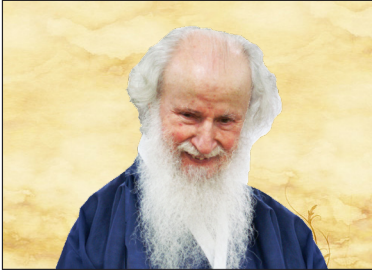
“주님...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고, 어려움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 깊어야 할 대출금과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멈춰 서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무심코 지나쳐 버렸으며, 그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를 떠올리게 된다면, 그 일은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단지 생존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은 또한 하느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에 경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며,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인류를 향한 창조주의 사랑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 위에 살아 있는 동안,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하도록 합시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시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추도식

오늘 각 지역 성당에서는 성찬 예배 후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4주기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 서울 성당 구복회 활동 소식

지난 4일(목)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부인회(구복회) 회원들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와 함께,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성당에 오지 못하고 있는 회원을 찾아가 따뜻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망원한강공원 전시관을 방문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비잔틴 성화 세미나 시작

지난 4일(목)부터 대교구청 선교회관에서 비잔틴 성화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2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은 주중(10:00-17:00)에 방문하여 수업 현장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 로만 대신부 사목 활동

지난 4일(목), 천안의 한 교도소를 방문하여 슬라브계 수감자들을 위한 성찬예배를 집전하고, 그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을 돕는 사목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사목은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일(7일)에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성찬예배를 집전했습니다.

■ 서울 성당 독일 태권도 수련생들 방문

지난 주일(7일), 독일 에를랑겐(Erlangen)의 태권도 교육기관인 Black Belt Center의 설립자이자 관장인 에프스트라티오스 파파델리스 씨가 수련생 30명과 함께 서울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을 여행하던 중 정교회 성당을 방문하고자 서울 성당을 찾았으며, 성당 안내를 받은 뒤 교회가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성의 샘터

천사와의 친교

스키티에서 수행하는 수도자 중 통찰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부가 있었다.

그는 수도자들이 한데 모여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천사들이 그 주변을 날며 그들에게 손뼉을 치는 모습을 보곤 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가 세상적인 것으로 바뀔 때면 천사들은 슬픈 모습을 한 채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